

과학과 종교 사이에서

김용준(고려대학교 명예교수)
2005년 5월 24일(화) 오후 3시~6시
벤처관 311호

제1부 <강연>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과학과 종교 사이에서'라는 아주 의미심장한 화두를 가지고 진행되는 제1회 숭실인문강좌의 사회를 맡은 사회대 정치학과 서병훈입니다. 오늘 바쁘실 텐데 귀한 시간을 내주신 김용준 선생님과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시는 여러 교수님, 학생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모임을 준비하고 기획해주신 숭실대학교 인문과학연구원 원장으로 계시는 하정식 선생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정식: 안녕하십니까? 금년에 인문과학연구소의 일을 맡게 된 하정식입니다. 인문강좌 제1회라고 이름을 붙여 놓았지만, 사실은 우리학교의 인문강좌는 70년대부터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1977년에 숭실대학교 개교 8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1974년부터 “한국의 근대화와 기독교”라는 주제로 4년 연속 있었습니다.

금년에 인문학과 타학문과의 모색을 하고 있던 중에 김용준 선생님의 『과학과 종교 사이에서』 라는 저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선생님께서 일생을 바쳐 추구해 오신 분야가 아닌가 합니다. 저는 마침 우리 연구소를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였습니다.

오늘 모신 김용준 선생님은 한국에서 과학과 종교의 가교를 놓은 최초

의 사상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특히 지난 40년 동안 자연 과학, 신학, 철학의 경계를 넘나드시면서 인간과 사회 그리고 과학에 대한 진지한 탐구를 해 오셨습니다. 특히 지난 10여년은 종교와 과학이라는 이질적으로 보이는 주제를 탐구해 오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선생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이 주제가 다소 무거운 주제인지라 선생님의 세계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서 각 분야별로 약정 질의자를 세 분 모셨습니다. 선생님께 대한 소개 말씀은 조금 더 길게 하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오히려 선생님의 세계에 접근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모조록 무거운 주제에 대해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통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자: 하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제 경우에는 70년대 처음으로 김 선생님 존함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씨알의 소리”라는 그 당시에는 꽤 의미 있는 매체였습니다만, 잡지를 통해 처음으로 선생님 존함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잘 몰랐었죠. 그러다가 학위 공부를 끝내고 숭실대학교에서 연구와 강의를 맡으면서 다시 한번 선생님의 존함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연과학을 하시는 분인데, 인문학 특히 철학, 뭐 저라도 굉장히 어려운 분야인데 그 분야를 깊이 천착하시고 학문의 경계를 넘어서 영역을 넓혀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존경스럽고, 한편으로는 제 자신의 얕은 지식과 게으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또 그러다보니까 우연한 기회에 우리 김 선생님은 숭실대학교와 각별한 인연을 갖고 계신 분이어서 더욱더 한번 뵙고 말씀을 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정말 저로서는 귀한 기회가 되어 다행스럽습니다. 여기에 나온 많은 분들도 저와 같은 심정이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강좌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선생님 말씀을 편안하게 들으시고요. 그 다음 10분정도 휴식을 갖겠습니다. 그 후에 세 분의 약정 토론자에게 토론 기회를 드리고 각 약정 토론자가 말씀을 하면 그에 대해 선생님께서 답을 해주시고, 그리고 세 분의 약정 토론을 들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시간을 아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청중여러

분의 질문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김용준: 우선 이렇게 불러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안와야 할 데를 온 것 같은 기분입니다. 처음에 제 둘째 아들이 찾아와서 강연을 해 달라고 그러길래 그러겠다고 얘기를 하고 말았는데, 지금 진행되는 방식이 자꾸만 저를 부담스럽게 해서 이거 괜히 하겠다고 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자 선생님도 그러시고 소장님도 그러시고 침소봉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 자신을 생각해보면 사실 엉터리죠. 빌 하나를 꾸준히 해야 하는데, 학문적인 체계를 세워서 공부를 한 건 전혀 아니고, 살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이 책도, 서문에서 얘기했듯이 사이버대학 총장님께서 특강을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먼저 신문에 회고록으로 소개가 되어 가지고 ‘돌베개’라는 출판사에서 요청해서 나온 겁니다. 제목도 그 쪽에서 정한 거구요. 처음에는 『과학사상』에서 김용준 교수에 대해서 쓴다고 해서 펄쩍 뛰었습니다…… 간신히 전화로 뜯어 말렸는데, 과학자 김용준을 꼭 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과학인 김용준’ 이라는 말도 어색하게 들어갔고요.

그래 지금 책이 이렇게 나왔지만 아직 한 번도 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와서 선생님들 앞에서 얘기를 해야 한다고 해서 제 글을 열심히 다시 읽어봤는데, 오식도 많고……. 그래서 이거 큰일 났구나, 사실 지금 시험관 앞에서 있는 수험생, 무슨 학위논문 심사를 받는 기분입니다. 그런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잘못된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숭실대학교, 하면 제 자식이 여기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마음에 화가 나기는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거 또 무슨 말을 하려나 하실지 모르겠는데, 더기가 그래도 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종합대학 아닙니까? 기독교에서 가장 큰 교세를 가지고 있는 교파인 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의 교회가 일주일에 거두어들이는 돈을 생각하면 사실 화가 나요. 우리나라 기독교계에서 세운 학교가 연세대·숭실대·계명대·이화여대 등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지만 미국의 예일이다, 프린스턴이다 그거

다 교회를 바탕으로 세운 학교들인데, 그들에 비하면 숭실대학이 요 모양으로……. 제일 큰 교단에서, 한 주일에 거두어들이는 돈의 몇 프로만 쏟아 부어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발전하고도 남을 학교인데, 그게 지금이 풀이거든요. 그게 화가 난단 말이죠. 이곳에 오는 순간까지도 여기 오면 무슨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지정 질문까지 한다고 해서 이거 무슨 원고라도 써와야 하는 건 아닌가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책의 일부를 하나하나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건 정해진 시간에 될 것 같지도 않고, 어떤 건 10여 년 전에 써 놓은 거라 이거 내가 언제 썼던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따가 몇 분이 지정 질문을 하신다니까 그것과 연장선상에서 책에 대한 말씀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를 하자면, 그런 얘기를 처음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왔습니다. 태어나면서 예배당에 다녔고, 용산교회 유치원을 다녔어요. 제 아버님이 당시 의전을 다니신다고 서울에 와 계시는 바람에, 저는 용산 예배당 옆에 용산유치원 제1회 졸업생입니다. 그렇게 자라서 일제치하가 지나고 해방이 되면서 여기 계시는 분들 중 제 나름대로 가까운 분이 안 계신 것 같은데, 해방 후 지금도 의문인 것은 이 마분지 같은 종이에 인쇄가 된 책이 쏟아져 나오는데 언제 그렇게 준비를 해왔던 것인지, 좌익 서적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스탈린 전집, 모택동 전집 등등. 그때까진 완전히 황국신민선서 같이 하고 아침에 조회 나가면 동방예배하고, 그래서 그런 글들을 쓴 기억이 납니다만.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를 심산수학교라고 했거든요. 심산수학교에 다닐 때에는 어린이용 신민선서가 있었어요. 우리가 초등학교에 다닐 적에는 어린이용 선서만 하다가 중학교 들어가는 첫 해 학교에서 어른들이 부르는 황국신민선서를 하니까 아, 나도 어른이 되니까 기분이 우쭐하던, 이런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세뇌가 되었던 셈이죠. 일제하에 그랬으니 이북사람들이 왜 저러는지 운동권 학생들이 왜 그러는지. 그런 차원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자라 가지고 해방된 게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니까, 그런 상황에서 좌익 서적을 읽기 시작하는데, 벌써 사상의 혼란이라고 그럴까요. 순간적으로 좌경이 되었습니다. 되지 말라고 해도 되거든요. 더군다나 일본사람들이 쓴, 야마카미 히데요신가 자본주의의 테두리라고 할까요. 그런 거. 가와카미 하루지가 쓴 다이묘변.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제2

의 가난한 이야기' 라고 하는 정도인데, 그런 책들을 읽고 나니까 완전히 돌아선, 크리스천이 하루아침에 좌경화가 되었다고 할까.

그렇게 흘러가면서 그때 저는 국대안 반대 신입생, 국대안 반대 투쟁 위원이 됩니다. 국대안 반대 투쟁위원으로 전주에 빠라를 붙이고 다니다가 경찰서에 붙들려 가기도 했어요. 그런 생활을 거듭하면서, 이런 얘기를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러면서 좌익의 물결 속에,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한두 달 잡혀 들어가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경찰서로 와서 송청이 되어서 서대문 형무소로 넘어가니까 서울 집에서 야단이 나고, 소위 군정 포고령 위반으로 잡혀서 아무리 형을 가볍게 한다고 해도 벌금형 이하로는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 일을 아버님이 올라오셔서 조사해 가지고, 그때 제가 만 20세가 안 되었던 때랍니다. 20세가 안되었기 때문에 소년 감호원에 들어가서 한 달 가깝게 생활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한 두 세달 해매는 동안에 해방직후의 혼란한 상황 속에서……. 지금 얘기가 잘못 흐르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고 보니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제가 국대안 반대 투쟁에 들어가서 형무소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을까. 그때 국대안 반대 투쟁을 하던 사람 중에 지금 알고 있는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거든요. 다 월북해서 이 북에 가서 숙청당하고 그 얼굴들을 봤으면 하는데……. 그렇게 대학생활을 하고 그러다가 책에도 있습니다만, 함석헌 선생님을 뵈게 49년이거든요.

지금은 헐어졌지만, 지금 서울 YMCA 자리에 예전에는 목조건물로 YMCA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 A4용지 한두 장 정도 될까 그 크기로 함석헌의 성서강의 종이가 붙어 있길래, 그 앞을 지나다가 무심코 YMCA 들어갔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마흔아홉 살이었거든요. 근데 수업을 기르셔서 할아버지로 보이더라고요. 이 양반이 말씀하시는데, 교수나 목사님들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씀에 한눈에 빠져 들어갔다고 그럴까. 그 후부터는 주일행사 때 YMCA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빠지지 않고 나가게 되었고, 그러다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건 6.25전쟁 일주일 전입니다. 1950년 6월 18일 날 그 YMCA 강당에서의 선생님 말씀이 아직도……. “이 사람들이 왜 이러지? 밑에서는 화산이 부글부글 끓어서 언

제 폭발할지 모르는데, 위에 살짝 덮인 암반 위에서 만세! 만세! 이렇게 까불고 있는 애네들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라며 한탄조로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6.25가 터졌습니다. 지금도 제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사야나 아모스 등 구약성경 속 예언자들의 예언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었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일주일 후에 적중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6.25를 겪게 되고, 또 중군통역도 하게 되고……. 그런 애길 지금 다 드릴 건 없고. 그러다가 해방 직후에, 해방 전에는 선교구들이 전부 달라가지고 충청남북도도 전부 감리교였습니다. 충청도에는 감리교 말고는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천안이 감리교였는데. 그러다가 해방이 되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예수교 장로회소속 교회를 시작하셨는데, 그때 개척교회 총목사님을 하신 분이 인광식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때도 제 마음속에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철학이라고 할까 신학이라고 할까 이쪽 공부를 해야지 하는 생각에 학사입학이라도 할까, 전과라도 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광식 목사님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앞으로는 과학, 과학을 하는 기독교인이 필요하니까 절대로 과학을 놓지 말아라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그 목사님이 아니었다면 제가 과학을 공부했을까요.

그보다 앞서 제가 자연과학과 만나는 계기는 일제 말에 (요즘으로 말하면) 재수를 하는데, 그때 경성 제국대학에서 연구생을 모집했어요. 고등학교 아니, 중학교 졸업생을 연구원으로 모집했거든요. 근데 뭐 중학교 졸업하고 재수생하고 있는 처지였으니까 기껏해야 지방에 있는 초등학교 축탁교사나 하는 정도였는데, 거기 시험을 봤어요. 경쟁률이 꽤 심했는데 합격을 하고, 일제 말에 경성제국대 응용화학과 제 4연구실 연구생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자연과학을 알아서가 아니라 대학생들은 근로동원으로 다른 곳으로 가 버리고 대학교수들은 일손이 모자라서 중학교 졸업생들을 모집해서 연구를 시킨 겁니다. 완전 기계 노동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무카이 산노스케라는 교수 밑에서 강원도에서 나오는 증장석을 척출해내는 실험을 했었는데, 그때 자연과학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일제 말이니까 징병을 안 가기 위해서는 이공계를 가야 했거든요. 인문사회계통에 가면 전부군대로 나가니까 이과를 지원했고, 자연과학을

만나게 되었는데, 해방직후에 그렇게 되어서, 국대안 반대라는 파도를 거쳐서 함 선생님을 만나 뵙게 되고, 부산에 내려가서 서울대학 졸업장을 내놓았고, 지금 들으시면 다 웃기는 얘기죠. 저는 그 6.25전쟁 중에 학교 소집일날 학교 한 번 나가서 거기다가 이름 석자를 적어 놓으면 그게 24 학점이 됐습니다. 이름을 못 적어 낸 사람은 반 학기 늦게 졸업을 하였구요. 이런 정도로 엉터리 학사 시대였는데, 그런 상황에서 부산으로 가서 졸업을 하고, 전시니까 천안 고향에 올라와서 천안농고 선생을 하게 되었고,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천안농고가 전쟁 중에 다 난리가 났는데,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 졸업이니까 화학선생으로 취직 되었을 게 아닙니까. 그래서 화학준비실, 현관 들어가는 앞에, 조그맣게 내 방이라고 있었습니다. 아마 숭실대학교와도 관계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방순원씨라고 대법관 하시던 분이데, 그때 천안에 오셨거든요. 그 분도 오시고 그래서 조그마한 화학실에서 타임지를 같이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6.25전쟁으로 선생이 없을 때니까, 그러는 동안에 천안농고의 교장 선생님이 바뀌면서 함 선생님이 오산중학교를 그만 두시고 평양에서 선산농원을 접수하시는데, 먼저 농원을 준비하시던 김두협 선생님이라는 분이 천안농고 교장을 하시면서, 선생님이 김두협씨를 만나러 오시는 바람에 그때까지는 1년 동안 강단 뒤에서만 보다가 함 선생님을 직접 만나 뵙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천안농고, 그 조그만 준비실에 양복 입은 함 선생님 모습을 처음으로 한번, 그때는 양복을 입으셨더라구요. 사진을 찍어 두었어야 하는데, 그 이후론 양복 입으신 걸 못 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개인적으로 접촉할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처음 뵈는 것은 49년이고, 돌아가신 게 89년이니까 40년이라는, 어쨌든 선생님과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걸 들어보시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배당에 다녔고, 천안농고 생활을 하면서,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도 하고 그랬는데, 천안교회 목사님이 함 선생님 좋아한다고 저를 출교 시켰거든요. ‘천안 중앙 장로교회’에서 출교를 당했습니다. 그 일이 제가 서울로 올라오는 계기가 됩니다. 지금도 기독교를 생각할 때마다 교회의 도그마, 종교의 도그마가 얼마나 무자비한 건지, 그 어린 가슴에…….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또 출교를 당하지 않았으면 목사가 되었

을지도 모르죠. 그때 박재동 목사님 따라서 삼각산에, 그런데도 따라 다니고 했으니까. 저도 잘못된 사람 같긴 한데, 그때 출교 당하면서, 제가 함석헌을 좋아한다는 게 출교 이유거든요.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별안간에 그렇게 되니까.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 무급조교로 가서, 무급조교 생활을 한 게 대학에 발을 들여놓은 첫 동기입니다. 그런 단계를 겪으면서 6.25가 터지고, 애기의 전후가 바뀌었습니다만. 6.25전쟁이 끝나고 천안농고를 떠나서 서울공대로 들어오고, 서울대학 뿐만 아니라 좌우익 싸움에 학교가 난장판이었으니까. 그런 와중에 제가 서울 공대에서 발을 못 붙이고, 제 지도교수였던 성자경 교수님 따라서 중앙공업연구소 연구관으로 가게 되거든요. 거기서 소위 AID, 그러니까 미개발국가의 기술훈련생으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워싱턴 DC에 비롱스탠다드에 연구원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미국 가서 일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 누이가 그때 텍사스에서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는 누이 보고 돌아가야겠다 싶어서 텍사스에 가서 누이를 보고 온 게 계기가 되어 미국의 대학을 돌다가 텍사스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고분자 계통을 하고 있었는데, 학과 논문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 학위 논문 지도교수가 나중에 되었습니다만, 그 양반을 만나게 되고, 지금도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걸 보면, 정말 생각지도 않게 그 양반 만나서 한두마디 하다가 만약에 당신 밑으로 가서 공부하게 되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잘 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워싱턴 부근의 대학에서는 150불인데 여기서는 250불 준다니가 갔죠. 그때 100불이 어디입니까? 워싱턴 근처에선 80불 150불인데. 그래서 유기합성으로 학위를 받았습니다. 책에도 적혀 있습니다만, 그래서 평생을 화학자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고려대학 화공과를 가게 되는 것도, 함 선생님 이 선생님 하면 꼭 유명모라는 선생님이 계신데,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요일마다 YMCA에서 노래강사를 하시는데, 그 양반 얘기를 길게 할 순 없고, 기인이죠. 하루 한 끼 먹고……. 오산중학교에 한 분이 오신다는데 중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 오산학교 교장으로 가서 책상 건너치우고 교자상 놓고 무릎 꿇고 교장 얘기 들으시고, 그 분께서 노래강사를 하시는데, 그게 제가 대학 다닐 때입니다. 김성수 칭찬을 하시더라구요. 남의 칭찬이라고는 도대체 하시는데, 인존을

두 시간 넘게 얘기하시면서 인촌의 소신 얘기까지 하시면서 그래도 이분이 우리나라의 받침돌이 된 거다. 그때 인촌 이미지가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이런 말씀 들으시면 다들 좋은 대학 다녔다 하실 거예요. 그때는 학교 마음대로 갔으니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울대, 연세대에서도 오라고 하지, 제 상관이었던 분이 공학부장으로 계시면서 오라고 그러지.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입니다. 60년대 초, 그때 콜라서, 서울대학……, 좌우 교수 싸움,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았고, 연세대에서는 무언지 빠다, 치즈냄새가 나는 거 같았고, 그때 인촌 얘기하신 게 생각이 났고, 마침 고려대에 공학부가 신설되어서 28년 거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요즘에도 함 선생님 TV에 소개될 때마다 불만인데, 함석헌 하면 운동권 제일 앞에 서서 주먹질이나 하고 그렇게 나오는데, 들여다보면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양심도 없이 괜히 껍껍거리는 거 굉장히 싫어하셨던 분인데, 지금은 또 그렇게 자꾸 누누이 얘기해도 두 시간 이상을 TV가 와서 찍어가도 자기 마음에 드는 한 두 컷, 제 말 중에서 또 나오긴 했겠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두 번 해직이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제 생각이 뭐 해직된 이유를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미국에서 가져오니까. 기독교 교수협의회라는 거 듣지도 못했고,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기독교 교수협의회가 있어서 일 년에 한번 모인 겁니다. 66년도인가, 65년도에 ‘신학과 과학에 대하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독교 교수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과학을 가지고 얘기해 달라고…….

미국에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박사논문 제출자격시험이라고나 할까요, 그걸 합격하고 나서 통과는 되었는데, 합격을 한 뒤에 화학책을 읽기가 싫더라구요. 더 이상 읽기가 싫어서 텍사스에 있는 구내서점에 갔는데, 무슨 책이 있나. 그런데 거기에 알팍한 책이 있는데, *Jesus Christ & Mythology*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루돌프 볼트만, 1부 20권이요, 100페이지도 안되는데. 그걸 사 가지고 텍사스에 공부하러 간 사람들은 지금도 아마 호강할 겁니다. 하버드 대학은 방 하나 차지하는 법이 없죠. 조그만 방에 와글와글 있는데, 텍사스에서는 방 하나씩 쥐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실험하고, 한쪽에서는 책 읽고. 처음에 볼트만이,

60년대니까 지금 기억을 다 하지는 못하지만, 볼트만이 그 책 속에서, '나는 하이데거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실천주의 신학…….' 뭐라 하면서 다른 얘기는 기억에 없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묻는 대로 대답한다. 음악적으로 물으면 음악적으로 수학적으로 물으면 수학적으로 답한다. 그런 얘기가 그 *Jesus Christ & Mythology* 볼트만 책에 나옵니다. 그게 청천벽력이거든요. 사람이 묻는 대로 나온다. 그래서 볼트만에 매료가 되어서 그 책 다 읽고 또 뭐가 있나 봤더니, 지저스 크라이스트 뭐 어쩌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독일어로 쓴 예수서인데, 예수, 나중에 한국외대 허혁 박사가 번역해서 아마 '예수'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나왔을 겁니다. 번역이 충실히 되어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나 봤는데 없어요. 그러다가 하나 발견했는데 역사종말론이라는 책을 찾아서 주문을 했어요. 그 책을 읽는 중에 학위논문이 통과됐어요. 학위를 끝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읽으면서 왔습니다. 그 책은 말하자면, 지금 교회,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에 아무 의심 없이 다니다가, 함 선생님 만나 빠뜨덕해서 출교 당했고, 그리고 미국서 공부한다 하면서 화학책이 지겨워서 어쩌다가 볼트만 서적을 만나게 되었고, 이러면서 제가 기독교에…….

아까 말씀하던 걸로 돌아가서, 과학과 신학의 대화, 자연과학의 원고로 주제발표를 해달라는 청탁이 그때 들어와서,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죠. 볼트만 책 얘기. 그런 얘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라고 지껄인 거 같은데, 그게 그때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반응이 좋았어요. 기독교 교수협의회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한 것뿐인데, 그 자리에서 기독교 교수협의회 중앙위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해에 총무가 되고, 그때 주제발표회 부탁을 받고 얘기를 할 때 연세대 서남동 교수가 회장이었는데, 그 양반이 일찍부터 해 왔더라구요. 자기가 물러날 테니 회장을 뽑으라고 해서 김용옥 박사가 회장이 됐어요.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나이 들어 보이죠. 근데 현영학 선생은 김용옥 선생보다 동안이라서 김용옥씨가 나이가 더 많이 먹은 줄 알고 손을 들어서 그 사람이 회장이 됐고, 그 다음에 다시 일 년에 한 번씩 그런 걸 하니까 모여서 현영학 선생이 회장이 됐죠. 그리고 제가 총무가 되었습니다. 현영학 선생은 미국에서, 일본에서 간사이 신학을 나와서 일찍이 한국에 공헌이 많은데,

제가 평생 겪은 학자들 중에서 그런 분이 없어요. 좋은 분입니다. 그 이
 가 회장이 되면서 제가 총무가 되었는데, 이 양반이 미국 사정을 잘 아
 니까, 유나이티드 보드에다가 리서치펀드를 신청했어요. 그런데 그 양반
 이 회장 때는 안 오고, 그 다음에 제가 회장이 됐는데, 그 때 돈이 3천불
 인가 왔어요. 그때까지 나보다 한 일이 많은데, 조요한 선생이 어떻게 자
 꾸만 얼굴을 빼가지고 제가 회장이고 조요한 선생이 총무를 했어요.

그래서 조요한 선생하고 저하고 이렇게 해서 기독교 교수협의회를 하
 고 되고, 3천불이라는 펀드가 생기니까 그것을 쓰느라고……. 그 때는 3
 천불이 컸거든요, 70년대니까. 그래서 고려대학교 철학과 졸업생 정상복
 이라고, 감리교, 벌써 예수가 넘었지만 그 사람이 고려대학에 제가 있을
 적에 기독교 학생회 회장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철학과를 나
 왔는데, 직장이 없어서 브리태니커 판매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월
 급을 다 주지는 못하는데 파트타임으로 돈을 줄 테니 와서 기독교 교수
 협의회 일을 도와라. 그래서 그 양반을 파트타임 강사로 채용을 했는데,
 그 사람 긴급조치 9호 때 아주 혼나지 않았습니까. 20년형을 받고. 저
 때문에 들어와서. 그렇게 해서 제가 지방에 대전, 광주, 부산, 대구, 청주
 이런 식으로 기독교 교수 협의회 지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조직을
 했는데,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해직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만, 그 중앙정보부에서 보니까 나중에 안 애깁니다. 전국적으로 교
 수단체는 아무것도 없는데, 기독교 교수협의회만 지방 지부까지 갖고 있
 단 말이죠. 이게 이학봉인가 그 사람 애긴데……. 어쨌든 1974년 정월이
 었나, 긴급조치 4호 나오면서 제가 해직이 된 겁니다. 제가 1차 해직이
 된 것은 그래서 된 겁니다. 제가 뭘 해서 그랬나요? 그냥 뭐 어떻게 해
 직이 된 거고, 그리고 79년 박대통령 죽을 때까지 4년 동안 해직이 되었
 으니, 실험 화학을 하는 사람이 실험실을 빼앗기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가던 교회가 있었는데, 실은 출교당하고서 교회 안 나간
 다고 했지만, 그래도 습관이 있어서 이 교회 조금 가보고 저 교회 가보
 고, 초동교회를 조금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향록 목사님과 가
 잡고. 그래도 오갈 데가 없으니까, 그때 돈암동에서 살았는데, 근처의 누
 이가 시집을 안 가고 있었으니까 아버님이 올라오셔서 그 애를 데리고
 있었는데, 누이 집에 가면 어머니가 그렇게 반가워하셨어요. 하는 일이

없었으니까, 하루 놀고 하루 쉬고 그랬는데 누이 집에 가면 밥도 먹여주고, 구래서 신촌에 가서 어머니 모시고 어머니 나가시는 교회, 그때 봉원 교회를 다녔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일요일마다 봉원교회를 다니는 게 주례행사가 됐죠. 봉원교회 목사님이 이원태 목사님이신데, 이 분이 솔직히 말씀드려 공부를 많이 한 분은 아닌데 열려 있었어요. 해직교수를 받아주는 교회는 대한민국에 그 교회밖에는 없었죠. 제가 해직 교수였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77년이었던가요? 그래서 제가 봉원 교회에 실무장로도 되고, 묘하더라구요. 77년인가 되었는데 제가 70세가 되는 해가, 27년생이니까 97년, 딱 20년이 며칠 넘어서 장로직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할 일이 있어야지요. 교회를 나가니까 교회 나오는 학생들 데리고 책을 읽기 시작한 게 다시 시발점이 되어서, 저는 그때부터 허혁 박사가 연결해서 이화여자대학에 나가게 되고 이 양반이 이화여자대학에서 불트만 독일어 강좌를 하니깐 현영학 선생이랑 함께 강좌에 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때도 처음에는 우리나라 말로 허혁 박사가 번역하신 책들을 듣고 읽고……. 그런데 많이들 읊니까? 처음엔 한 20여명 왔다가 나중엔 두세 명 너댓 명 남는데, 그들은 그냥 다들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다가 영어로 읽자, 독일어로 읽어 보자, 이렇게 독서모임이 시작되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원서 읽는답시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책 섭렵이 된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 책 저 책 읽게 되고, 그러다가 하이데거를, 멋도 모르고 읽었는데, 가다머의 진리와 방법 이런 것도 처음엔 영어로, 지금 생각하면 그게 뭔지 알고 읽은 게 아닌데, 대학생들 데리고 앉아서 그런 책들 읽어보고. 읽다보니까 독일어로 한 문장 찾아보고 영어로도 읽어보고, 이런 식이었죠.

그래서 체계적으로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이 책 저 책 섭렵해서 읽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뭐라도 된 거니까. 무슨 대회에도 나가고 할 일 없으니까 함 선생님도 따라다니고, 그러다가 박 대통령 죽고 전두환 정권 들어서면서, 이제는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절대로 저는 안했는데, 133인 지식인 서명이 나와 가지고 지금 변형운씨 그 사람이 저보다 1년 선배예요. 나이는 저랑 동갑인데. 일제시대니까 3월 이전에 난 사람은 그 해에 들어갔고, 3월 이후에 난 사람은 그 다음

해에 들어가서 내 생일은 10월이고, 그 양반은 2월인가 그랬어요. 133인 서명을 하다가 자연과학도가 없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김용준이 있으니까 가서 서명 받아오라고. 나오라 나오라 하는데 안 나갈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연과학에서도 전두환이 정권잡지 말라는 건데, 자연과학도가 하나도 없으니,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그것도 두 번째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쓰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고 저거고 그냥 쓰시오. 시간 끌지 말고 하면서 툭 던져주는데 그놈을 읽으니까 그 속에 김용준을 과학자 대표로 끌어들이라고, 그래서 2차 해직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디 나가서 크게 일한 거 아니고. 133명에 자연과학계통의 사람들을 끌어들이어서 자연과학을 대표하는 준비위원이라니까 걸릴 수밖에요. 133명이 다 해직된 거는 아니고 준비위원은 해직을 시켰는데, 자연과학대표가 김용준이니까 해직이 된 거죠.

그리고 있는데, 두 번째 해직이 다행이었던 건, 어느 날 고려대학의 철학과 신일철씨가 전화를 했어요. 이용희라는 분 아느냐고. 이갑성씨 아들이고 유명한 분 아니냐.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모른다고 했더니, 한번 만나보지 않을라냐고. 그거야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당신과 만나서 괜찮으면 만나고 아닐 거 같으면 안 만나는 거지 뭘 그러냐. 그래서 그 양반과 만나는 것이 계기가 되어서 김우중 씨가 200억을 복지재단에서 학술재단으로 전환하면서 이용희씨를 이사장으로 앉히면서 그 밑에 세 사람의 자문위원, 인문, 사회, 자연, 인문이 신일철씨이고, 사회가 노재봉씨이고, 자연 쪽에는 사람이 없다고 하니 신일철, 노재봉씨가 김용준 해직교수가 있다고 하니 당장 오라 그러라고. 자연과학을 하면서 함석헌을 쫓아다니던 사람이라고. 이게 계기가 되어서 대우재단의 자연과학분야의 전문위원이 되었습니다. 해직 당한 다른 분들보다는 좀 나왔죠. 저는 그렇게 해서 지냈고, 거들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정말로 전화위복이었는지 모르죠. 실험실 빼앗기고 그랬는데 대우재단에서 이제는 저서도 600권 나와 있고, 어쨌든 자연과학 하던 사람이 인문사회계통 사람들을 접할 수도 있었고, 그러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잡담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과학과 종교라고 했을 때, 과학자는 되었구요. 종교라는 건 어려서부터 그랬으니까.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건 현영학 선생이 이상하게 Zigon지를 소개해 주거든요. Zigon지가 아마 지

금도 가장 충실한 잡지가 아닐까요. 과학과 종교를 연결해가는 계간지입니다. 그것을 접하게 되면서, 특히 Zigon지를 통해서 제가 많은 인포메이션도 얻고 자극도 받고 그러다가 95년도 정년퇴직하기 직전에, Zigon지가 주관하는 모임으로 스카 아일랜드라는 데서 하는 집회가 있는데, 그런데 한번 가고 싶었다가, 정년퇴직하기 직전 해에 거기에 갔습니다. 정년퇴직하기 전, 월급 탈 때 가자고 해서 거기서 세계 자연과학과 종교 사이의 여러 학자들, 지난번 여기 왔던 마이클 루스도 거기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를 불러주신 건 사실은 『과학과 종교 사이에서』라는 책 때문에 불러주신 것으로 아는데, 그 책을 내게 된 동기는 이렇습니다. 『과학사상』 잡지의 편집인으로 3년간 재직을 하다가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후임으로 동국대학교의 김용정 교수가 맡게 되면서 원고를 하나 청탁하시네요. 이래서 종교와 과학, 과학과 종교라는 걸로 연결시킨 글을 쓴 게 90년 초였을 겁니다. 지금까지 그게 계간으로 나왔는데, 충실하게 매번 쓸 수 없으니까 어쩔 땐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10여년을 연재한 것이 지금 엮어져서 그 사람들이 제목을 “과학과 종교 사이에서” 뭐 이렇게 해서 이 책이 나왔습니다.

기독교를 어떻게 느끼든 간에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 기독교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너무 흔하게 쓰지 않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흔히 쓸 수 있는 말이 아닌데, 하나님, 하나님 너무 흔하게 쓴다구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human construct인데, 인간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는 하나님이어야 내 하나님이지 않겠어요?

그 전부터 있었던 얘기지만 하나님도 같이 고통에 동참하는 거죠. 함선생님도 그러셨는데, 예수님도 가끔 울었다는 얘기. 찬송가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는 하나님, 고통 속에서 고통을 나누는 하나님. 글썄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지만, 하나님도 진화하죠. 하하하. 이거 잘못 들으시면 분명히 오해받을 얘기인데, 그렇다고 제가 인간 쪽이 아닌 하나님 쪽에 서서 얘기할 순 없잖아요? 뉴턴의 세계와 양자역학의 세계, 즉 불확정성의 원리의 세계 간의 문제점은 뉴턴의 언어로는 양자역학과 대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가지고 나오면서 종교세계와의 언어도 단절됩니다.

여러 선생님들 앞에서 죄송하지만, 이제 잡담을 끝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연과학의 언어와 종교의 언어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언어가 나오겠죠? 그런데 그냥 언어에 대해서 단절해 놓고 이건 하나님의 세계고 인간의 세계고 어디가 감히 하나님의 세계를 넘보느냐?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서 과연 종교가 정말로 내 것이 될 수 있는가? 내가 고민하고 내가 사는 종교일까? 이것이 현대 사회가 갖는 고민이기도 하고, 희망이기도 하고, 제가 앞으로도 생각해 보고 싶은 문제입니다.

사회자: 선생님,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이제 선생님의 말씀 보따리가 본격적으로 풀어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묶은 세 분 약정 토론자가 얼마나 알찬 질문을 해 주시느냐에 따라 좋은 이야기를 더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분간 휴식하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부 <약정질의 및 토론>

사회자: 선생님께서 말씀을 풀어놓으셨는데요. 좀 더 깊고 무거운 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분의 약정 질의자를 모셨습니다. 화학과의 신권수 교수님, 철학과의 백도형 교수님, 불문과의 이재룡 교수님이십니다. 이 세 분이 차례로 질의를 해 주시면 이에 대해서 김 선생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그 다음 질의자 순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약정 질의와 답이 끝난 다음에는 여기 앉아계신 다른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신권수 교수님께서 나와 주시겠습니다.

신권수: 안녕하십니까! 자연과학대 화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신권수입니다. 한 열흘 전쯤인가요. 인문과학연구소 소장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송실 인문강좌에 김용준 선생님을 모시고서 강연을 갖겠다고 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참석하겠다고 했습니다. 궁금한 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약정 질

문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자연대에서는 미리 질문자를 정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익숙하지 않은 분야라 책을 읽어가면서 정리를 해도 좋겠다 싶었습니다. 모르는 부분을 찾아 읽고 질문을 준비해서 하정식 교수님께 드렸는데, 오늘 복사해서 나눠 주셨네요. 어떤 질문을 오랫동안 할 수 있는지 잘 몰라서 작성해온 질문 중에서 제일 궁금한 것 한두 가지 여쭙보려고 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 여쭙보고 싶은 주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우선 저는 과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과학과 종교에 관련된 것 한두 가지, 그 다음 과학과 인문학의 만남 한두 가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과학과 종교에 있어서, 누구든지 가장 궁금한 게 창조와 진화론에 관한 문제인 것 같고, 김교수님도 그 분야에 대해 다양하게 소개하시고 논쟁들을 비교해 주신 것 같습니다. 책에 보면 5장이나 15~17장이 진화론과 창조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도킨스라든지 엘드릿츠, 베넷, 마이클 비히, 선생님께서는 마이클 루즈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면서 논쟁들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일단은 자연과학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연과학자가 본 과학과 종교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략)

우선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의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다르죠. 미국은 아직도 그런 부분이 많은 문제가 되어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진화론과 같은 내용으로 창조론이나 지적설계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법정에서 제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창세기 그대로의 창조론에 대해 믿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1900년대 초 인걸로 알고 있는데 필립 잔슨이 지적설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미국법정에서 소송을 받았던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국내에서도 일부 자연과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지적설계연구회라는 조직이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잘 아는 분도 몇 분계십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아직 지적설계에 대한 개념을 창조론의 한 변형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또 아직까지는 과학이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에서의, 저도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적설계에 대하여 아주 매력적인

부분이 있어요. 다윈이 얘기하는 자연생태계에서 잘 적응한 종들만 살아 남는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창조자 혹은 지적설계자가 생물학 종들을 주관한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긴 합니다. 제가 자연과학을 하는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진화론을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김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연과학자들이 생각하는 진화론은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리차드 도킨스라든지 골든이 말하는 진화론이 대부분의 자연과학을 하시는 분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물론 도킨스와 골든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진화감이라든지, 진화 속도 그러한 자세한 부분에 있어서의 논쟁은 오랜 동안 되어 오고 있지만 이들의 논쟁은 영국과 미국을 대표하는 진화학계의 대표적인 사람들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런 의견들을 가장 많이 받아들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진화론을 설명하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화란 진보가 아니고 생명체들이 생존과 번식을 위해 단순히 주위환경에 적응하는 것이고, 생명체의 특성이나 행동양식에는 최적의 설계나 방침이 있는 것이 아니며, 자연선택이 어떤 목적을 향해 합목적적으로 진행되는 일에 대한 과정을 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진화론이라 생각하고 거기에 기초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마이클 비히의 지적설계에 대해서 교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어 보고 싶어요. 두번째는 마이클 존스가 진화론적 자연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과연 진화와의 목적이 있느냐 그리고 진화란 것이 과연 진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그렇게 마침표 찍어버리는 창조론 갖고는 얘기가 안 되죠. 소위 지적 설계다 뭐다 해서 궁극적으로는 이게 무슨 목적이 있느냐. 제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땅에 굴러다니는 돌맹이가 어떻게 무슨 목적성이 있다고 보겠느냐? function이 바뀌어서 제 연구실로 돌맹이를 가져와서 문진 대신으로 돌맹이를 쓰게 되면 그때 여기서 목적이 생기는 것이죠. 일반 사람들도 듣기에 이해가 잘 되는 얘기일 텐데. 길바닥에 돌아다니는 걸 하나님의 섭리 운운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러나 그게 내 책상위로 올라와서 문진 역할을 해 줄 적엔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갖는 거

다, 이런 차원을 가지고 디자인하고 메타포 얘기를 해 나가면, 그게 어떤 무슨 통로가 장차 생기지 않겠어요? 제가 다만 한 가지 생각하는 건, 한국의 소위 열심히 믿는, 정통을 자랑하고 열성이 있다는 크리스천들이 그런 대화 자세를 부인하는 것,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한국의 목사님들, 90%이상이 진화론 거부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얘기를 이렇게 가져가자면 얘기가 끝나 버리는데... 정말 그 지금 돌멩이가... (웃음)... 어떤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답이 나오려면 아무래도 종교와 과학의 언어가 소통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발견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거기에 이거는 되고 이거는 틀렸다?

요는, 제가 답변을 한마디만 해드리면, 지금 그런 질문이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종교에 대해서 그런 의미로 접근했으면 좋겠고, 기독교의 목사님들도 접근해 간다면, 저는 앞으로 희망을 갖겠습니다.

또 신과학에 대한 말씀도 하셨군요.

백도형: 저는 질문지를 짧게 해왔으니까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뉘드린 4페이지 5페이지 두 장인데요. 쪽 읽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전문화의 영역을 무색하게 하는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사유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방대하고 다양한 논의들을 나름대로의 한 가지 그림으로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앞에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 그리고 책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 이외에 선생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은 욕심에서, (오해의 위험은 있지만) 저서의 내용을 그대로 요약하거나 발췌해서 동의를 구하기보다는 저 나름의 말과 틀로써, 그리고 다만 선생님의 말씀 중 몇 개의 키워드만 동원하여 짜집기 하는 것으로 선생님의 생각의 윤곽을 넘겨짚어 보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 여쭙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엮어보려고 했습니다. 저의 질문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질문이 되겠습니다. 요약한 걸 다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서양의 전통적인 세계관과 인간관에 의하면 신, 인간, 자연은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차이를 지닌 존재자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현재까지의 탐구의 결과로 이러한 세 존재자들 간의 간격은 좁혀질 것 같습니다. 우선 신의 피조물로서의 인간과 자연은 더 이상 불연속적인 차이를 지니지 않습니다. 예전에 인간을 규정하였던 이성, 의식, 그리고 언어와 문화조차 최근의 과학의 성과에 의하면 이제는 자연의 산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인간 역시 자연의 연속적인 존재의 하나일 뿐입니다. 다만 인간은 독특한 언어를 가지고 있고, 언어의 상징·표상 그리고 때로는 은유의 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문화는 인간을 동물과 차별화시킬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간과 문화에 관한 연구는 가다머의 지적대로 과학의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역사적, 논리적, 철학적 맥락의 이해를 통해서 즉 역사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만물과 만사 속에서의 위상을 되새기며, 인간과의 관계를 따져보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적절한 개념화를 위해서는 때로는 시적인 상상력도 필요합니다. 심지어 최근 과학철학의 성과는 자연에 대한 탐구인 자연과학조차도 이런 식의 맥락과 의미연구를 중시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진리’와 ‘객관성’의 거품은 재인식되어야 합니다.

자연신학으로서의 진화신학에 따르면 종교의 진리와 과학의 진리를 미리부터 배타적인 것으로 선을 그을 필요가 없습니다. 과학이란 결국 신의 피조물의 질서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연 질서 역시 신의 피조물이며, 인간은 다만 그것에 숙연해 질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인간, 과학, 그리고 신학은 서로서로에 대해 미리부터 폐쇄적이어서는 안 되며, ‘자신을 비우고 내어줄 수 있는’ 새로운 존재와 의미에 대한 개방성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러한 개방성은 신학을 ‘역사로서의 계시’에 대한 ‘역사로서의 인간’의 이해로 보게 합니다. 역사의 의미는 종말에 가서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따라서 말씀의 의미 역시 물역사적으로 고정된 의미(逐字靈感說)로서가 아니라, ‘현재와의 대화’를 통해 이해해야 합니다. 앞에서 문화와 자연에 대한 이해에 동원되었던 맥락과 의미의 이해가 신학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 인간, 자연은 서로 더 가까워졌습니다.

물론 신과 피조물로서의 인간과 자연의 간격은 남아있고, 신과 피조물의 간격을 좁히려는 것은 결코 선생님의 뜻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신에 대한 연구도 결국은 우리 피조물의 일이기에 역사성과 개방성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백도형: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 봤습니다.

김용준: 질문이라고 하기보다는 도리어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을 강조 주셨군요. 여기 학생도 와 있는 것 같은데, 제 기본적인 과학에 대한 생각은 이렇습니다.

최근에 최재천씨가 번역을 해서, 애드워드 윌슨의 『통섭』이라는 번역본이 나왔습니다. 윌슨은 생물학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걸 거기에 넣어서 얘길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 동의하는 건 아니구요. 그리고 과학이란 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은 그걸로 멈춰서는 안되는 게 아닌가 합니다.

사람 · 종교 · 과학 이게 하나지, 그게 그렇게 분리되어서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교의 세계와 과학의 언어가 통하지 않겠나. 앞으로 또 그렇게 되리라고 보구요.

이재룡: 지정토론 하라고 해서 급하게 책을 읽어 봤습니다. 책 제목이 『과학과 종교 사이에서』라고 해서 문학 전공하는 사람이 할 일이 뭐 있나 싶은 생각으로 읽어 봤습니다. 대개 문학의 위치가 과학과 종교 사이에 있거나, 그 쪽에서 하지 않는 찌꺼기를 가지고 하는 건데, 책을 보니까 5백 명 넘는 학자들을 거명 하셨더라고요. 문학이나 미학이나 이런 쪽에는 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중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선생님 책 40~70페이지에서 언급한 하이젠베르크 얘기입니다.

과학적 진리가 되었든 자연에 관련된 진리이든 신에 관한 초월적 진리이든, 어느 순간에도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가 있는가 하는 회의죠. 진리가 있는데 그게 소통될 수 없는 진리라면 그것이 과연 진리일까 하는 의문입니다. 과학과 종교가 소통되어야 한다는 이야기, 만약 그런 언어가 있다면 어떤 언어일까 그것이 궁금했구요.

또 하나는 선생님이 과학을 전공하신 분이고, 또 종교를 주제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연과학과 종교의 특징이 진리라는 것이 보편적이고 영구불변한 것이고 하여튼 이런 것을 추구한다고 생각하는데 문학 같은 경우는 대개 역사적 맥락이라든가 인간사회 속에서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많이 따지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과학적 진리라든가 초월적 진리든 포함해서 진리라고 이름 붙여진 것들이 대개 사회적 상관물이라고도 하고, 사회적 구성체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몇 년 전에 프랑스에서 1년간 논쟁이 되었던 건데 논쟁의 요지가 인문학자와 과학자가 토론하는 것이었습니다. 둘 다 진리를 얘기할 때 한쪽에서는 지나친 상대주의적 입장에서 모든 진리를 역사적 맥락을 빼놓고 생각하면 진리라고 할 수 없다 라고 얘길 합니다. 그래서 공통의 언어가 있을 수 없다.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과학적 진리, 종교적 진리라는 것들이 과연 역사적 상관물인지 또는 사회적 구성체인지 선생님이 책에서 쓰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읽다보니까 선생님 책에는 역사적 관심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항상 어떤 특정한 시대에 어떤 학자들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것이 탄생하게 된 사회·정치적 맥락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까지 보았을 때 진리가 더 우리의 가슴에 와 닿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종교와 과학에 대해서 별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 때문에 선생님께서 저를 초등학교 5학년짜리 주일학생이 질문한다고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연이 운행하는 질서가 있을텐데, 그 질서에서 과연 어떤 의도를 찾을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디자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천둥치고 벼락치고 쓰나미가 휩쓸고 갔을 때, 거기에서 무슨 의도성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신의 의도가 있을 수 있고, 배후 세력의 의도가 있을 수 있는데, 자연섭리에 어떤 기획성이 있을까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종교와 과학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근거가 아닐까 생각해서 여쭙어 보는 겁니다. 별에서 의도성을 읽으면 점성술이 되고, 별을 별로 보면 천문학이 되는데, 과학과 미신이 갈라지는 경계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학도도 아니고 철학도도 아니고, 문학도라서 뒤죽박죽 두서없이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김용준: 지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

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지금 과학이 모든 현상을 다 설명합니까? 현재 과학의 언어로는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인문 사회에서 쓰는 언어가 어떻게 과학의 세계나 과학의 언어를 커버하느냐 그건 또 아니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과학과 종교를 다 아우르는 언어의 소통이라든가 하는 그런 걸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릴 만한 것도 아니고요. 이를테면 화학자 중에 노벨상까지 탄 사람이 노벨상 탄 다음에 시인이 되어 버렸거든요. 여기 화학계에서 한번 우리나라에 불렀는데, 서정주씨 만나고 그랬어요. 말하자면 어떤 의미의, 과학이 궁극적인 데로 가면 시라는 언어, 궁극적으로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게 어떻게 해석되고 표현될지는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께 부탁 말씀을 드린다면 과학 안에서 시가 발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세계가 분명히 있을 것 같구요. 선생님 말씀에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자: 그러면 참석하신 분 중에서 자유롭게 질문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철학과에 곽신환 선생님!

곽신환: 질문

김용준: 허허, 제가 접근할 성질의 것은 아닌 거 같은데요. 어떤 분이 서평에서 왜 동양 사상은 한마디 언급도 없나, 이런 서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하고 만나는 자리가 있어서 그거야 당신이 하는 거지 내가 할 일이나 그렇게 얘길 했습니다. 제가 동양사상에 대해 아는 것은 뭐 함 선생님한테 들은 정도이고, 노자를 몇 번 시도해 보려다가 못했습니다.

지금 곽 선생님 말씀 듣고 언뜻 생각나는 게 리처드 로티입니다. 로티는 지금 누가 봐도 무신론자라고 하고, 로티를 유신론자로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본인도 그러지요. 하지만 저는 로티를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이 무신론자 같지가 않거든요. 몇 번 만나봤는데, 선생님께서 “임의 세계”라고 하셨는데...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늘나라랄까, 그것의 현재성을 전혀 하지 않고서는 기독교가 성립하지 않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전적으

로 동의합니다. 그게 아니고서야 종교가 성립될 까닭이 없죠. 사실, 기독교가 부활, 부활 그러는 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부활에서 오는 삶이지 자꾸만 미래에다가 초점을 맞추진 말아야 할 거 같아요. 거기서부터 한국의 기복신앙이라는 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소리하면 욱먹겠지만, 한국 교회가 새벽기도 때문에 망했다는 소릴 가끔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성을 마비시키고, 현세를 무시하고 저쪽세계만 자꾸 바라다보게 하는 거, 그게 지금 종교의 맹점이 아닌가? 그렇다고 제가 기적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걸 믿으면 그렇게 사는 거지 열을 내면서 싸울 생각은 없어요. 기적을 앞세워 얘기하면 그건 망하죠. 선생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사회자: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 받겠습니다.

학생: 질문

김용준: 저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의 과학이든, 현재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든. 예컨대 기독교면 기독교든. 이것이 지금 이 순간으로 화석이 되어 버리면 안됩니다. 과학의 언어도 진화하겠죠. 종교도 진화한다는 책이 요즘에 번역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도 현재로선 그냥 굳어버리는, 이런 종교가 있지도 않아야 하고요. 양쪽이 다 그런 식으로 나아가면 어딘가에서 통하는 뭔가가 생기겠죠.

학생에게 답변이 안 됩니까? 질문 더 해도 되는데, 이해가 됩니까?

학생: 질문

김용준: 그러니까 얘기 해준 게…….

그러니까 과학도 도그마가 되어선 안 되고 종교도 그래선 안 된다는 겁니다. 도그마끼리 만나면 그건 안돼요. 그러니까 종교도 진화하고 과학도 진화하고 어디 가서 접촉을 찾을 수 있을 거니까 좋죠.

사회자: 이렇게 격조 높은 담론의 장은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정치철학을 공부하는데, 요즘 정치학이나 자유주의나 이데올로기에서 보편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로 큰 진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을 합니다. 아까 이재룡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적 맥락, 상대성이 주류가 되고 있는데... 제 자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장을 파고 들어가면 뭔가 큰 틀에 나름대로 의지하고 있지 않은가 궁금하기도 한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학과 종교, 인간과 신, 또 자연. 이들 사이에 소통될 수 있는 언어가 많이 개발되어서 우리의 실존적 갈등을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께 좋은 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 선생님의 폐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정식: 장시간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지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대학 1학년 때 철학 심포지엄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했었는데, 우리가 보통 '향연'이라고 번역되는 이야기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진지함을 저녁식사로 이어가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번 강좌를 기획하면서 걱정했던 것은 선생님이 노익장을 과시하고 계시다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한 시간 넘게 강연을 하고 질의응답까지 마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는데, 사회자께서도 앞으로도 좋은 말씀을 기대한다는 말이 쉽게 나올 정도로 오래 강연해 주셔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접어야겠지만, 조출한 저녁자리를 마련했으니, 선생님께서도 혹시 괜찮으시다면 오셨으면 하지만 무리한 부탁이 아닌가 생각도 됩니다. 오늘 함께 이 귀한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연구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준: 아무래도 이 말씀은 좀 드려야겠어서요. 책 153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중간에 보면 1028이니 1015니 그게 다 10의 32승, 10의 28승, 10의 15승입니다. 지수가 다 내려가서, 그게 미스프린트, 오식이 됐으니까. 그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